









기상청장 기고

05 / 겨울 없는 미래, 현실화된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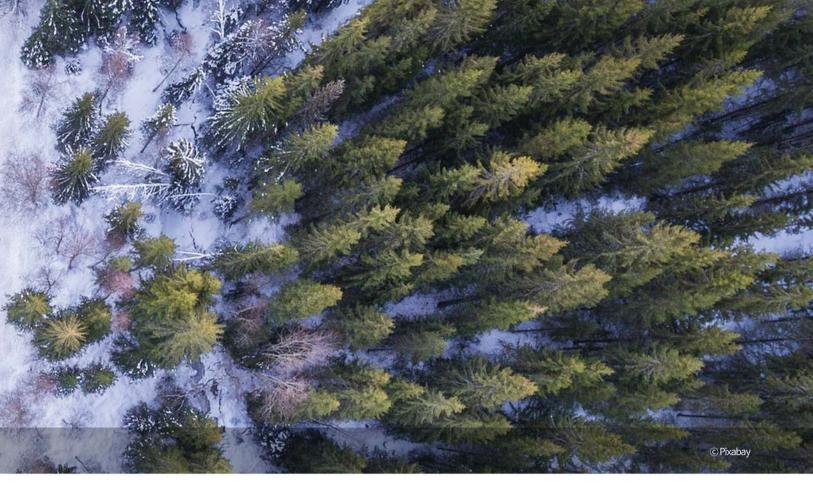
대전지방기상청 소식

07 / 2022년 12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17 / 2023년 1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29 / 2023년 2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35 / 관측기록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서비스

37 /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는 기상청 전자민원

38 / 알기쉬운 민원 신청방법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83 (구성동, 대전지방기상청) 전화 042-363-3599

발 행 일 자 2023년 2월 28일

발 행 처 대전지방기상청

편 집 장 박영연 대전지방기상청장

편집 / 교열 이은영(기획운영과), 이혜정(기획운영과), 윤영란(예보과), 허자윤(관측과), 정영진(기후서비스과)

편집디자인 김진영(관측과

웹진기자단 김병국(예보과), 김정수(기후서비스과), 김효원(예보과), 남민우(관측과), 박보연(기후서비스과)

박선영(기후서비스과), 박진주(예보과), 박형진(예보과), 심준수(관측과), 안태건(관측과)

이혜정(기획운영과), 장민준(예보과), 최유미(관측과)



올겨울북반구는 역대급기상이변 진행

"나는 그가 살아있다고 믿어. 그가 온 후 시작된 눈이 지금까지도 내리고 있잖아."

팀버튼감독의 영화 '가위손(1990) '에서 여주인공이 훗날할머니가 되었을때, 눈이 어디서 오는지 묻는 손녀딸에게 하는 말이다. 눈이 오지 않던 마을에 가위손이 얼음으로 천사를 조각하자 얼음 가루가 눈처럼 흩날리고, 처음 눈을 본 여주인공이 기뻐하며 춤을 추는 모습은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잊지 못할 명장면으로 손꼽힌다. 영화는 사라진 가위손이 고성 안에서 얼음을 조각하는 뒷모습을 비추며 끝난다.

영화 속 가위손은 눈 내리는 겨울을 만들어주었지만, 이와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기후변화가 남부지방에서 눈 내리는 겨울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전망이나왔다.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는다면 다가올 2100년경에는 17개 광역시도 중 무려 8곳, 경남, 전북, 전남, 제주도, 부산, 울산, 대구, 광주에서 겨울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의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인 저탄소(SSP1-2.6) 및 고탄소(SSP5-8.5) 시나리오 2종을 사용하여 17개 광역시도, 220여 개 시군구, 3,500여 개 '읍면동별 기후변화'를 전망한 결과다.

이번 전망은 계절의 길이뿐만 아니라 최고 · 최저 · 평균기온, 강수량과 폭염 · 열대야 등 극한기후 27종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기후정보포털 누리집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올겨울 북반구는 역대급 기상이변이 진행되고 있다.

북미지역은 성탄절을 앞두고 기록적인 혹한, 폭설 및 겨울 폭풍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반면에 이웃한 유럽대륙은 한겨울에도 20도에 이르는 이상고온이 나타나 극한의 대조를 보였다. 지난여름 파키스탄은 최악의 홍수로 국토의 1/3이 잠겨 1,7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인구의 10%가 넘는 3천만 명이 이재민이 되는 일도 있었다. 파키스탄 정부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도 배출하지 않는 나라가 기후재앙의 희생자가 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이처럼 산업화 시기에 선진국이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가 저소득 국가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기후정의'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지난 11월에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는 처음으로 공식의제로 '손실과 피해' 문제를 채택하고, 손실과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 신설을합의했다.

최근 우리 국민들의 기상기후 분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는 '기후변화'였다. 종합순위 3위는 '초단기 강수예측'이었으며, 뉴스/사회 분이에서는 '태풍 힌남노'가 6위로 나타났다.

반면, 글로벌 종합 검색순위 10위 안에 기상기후 분야는 없었고, 뉴스 분야 6위에 '허리케인 이언'만이 있었다.

세계인들과 달리 유독 한국인들의 관심이 기상기후 분야에 쏠린 것은 작년 한 해, 특히 기록적인 수도권 집중호우, 태풍 힌남노 등 기상재해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다루어 졌기때문으로 보인다.

작년 3월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되었다.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정책으로 지난 11월 부터 카페, 음식점 에서 일회용 종이컵 이나 플라스틱 빨대 등을 쓸 수 없게 되었고, 편의점과제과점에서도비닐봉투 사용이 제한되었다.

12월부터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으로 세종시와 제주도 카페에 일회용컵 반납기가 설치되었다.

기상청은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 과학정보를 제공해나가고자 노력할 것

작년 세계기상기구에서 발표한 '2021년 전 지구 기후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 지구 평균기온은 이미 산업화 이전 대비 1.11도 상승하여, 지구온난화 한계온도인 1.5도까지 0.39도가 남았다.

기후위기시계(독일기후연구소 MCC사이트)를보면 1월현재 1.5도에 도달하기까지 남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74.6기가톤에 불과하며, 남은시간은 6년 6개월남짓이다.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실질적인 저탄소 활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개인과 회사, 나아가서 사회가 연대하여 행동하는 것이 절실하다. 기상청은 이를 돕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과학정보를제공해나가고자노력할 것이다.



7-16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12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2022. 12. 1.

2022년 관측업무개선발표회 우수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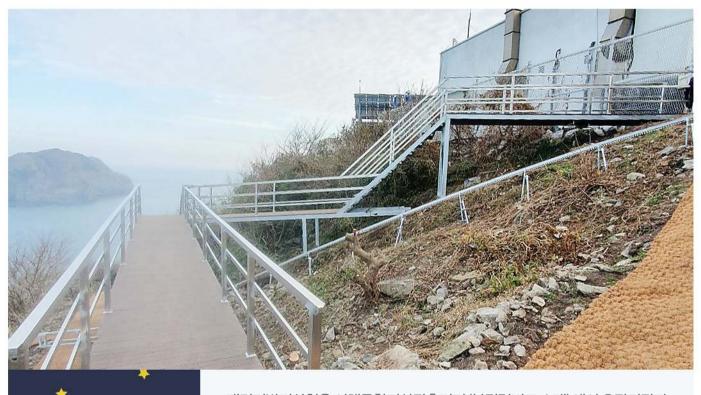


대전지방기상청은 활용도 높은 관측기술 개발과 공유를 위해 지난 12월 1일 대구에서 개최된 관측업무개선발표회에 참가하였다. 기상청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이행사에서 대전지방기상청은 '효율적인기상관측을 위한 기상관측차량 운영 · 관리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지속적인 관측기술 개선을 통해 고품질 기상관측자료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2.12.5.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북격렬비도 소재) 모노레일 개선





대전지방기상청은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북격렬비도소재)에서 유관기관과 공동사용하는 모노레일의 안전 확보와 편의성 제고를 위해 모노레일 이원화 개선공사를 시행하였다. 또한, 사고 위험이 있는 가파른 통행로에 데크를 설치함으로써 불편한 이동 동선을 개선하여 작업자의 작업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위험성 진단과 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2. 12. 8.

외연도 자동기상관측장비의 안정적 운영 및 관측 등급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대전지방기상청은 도서 지역에 위치한 외연도 자동기상관측장비 외부 펜스, 측기탑, 강수량계의 부식으로 인해 지난 12월8일 시설 개선 작업을 시행하였다. 부식된 외부 펜스와 풍향·풍속을 관측하기 위한 측기탑, 강수량계를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였으며 풍향·풍속계, 온·습도계, 시정 센서의 위치를 재배치하였다. 이번 시설 개선을 통해 도서 지역의 안정적인 기상관측 장비 운영과 관측 등급 향상으로 고품질 관측자료 생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2. 12. 12. ~ 23.

대전지방기상청 관측장비 안내판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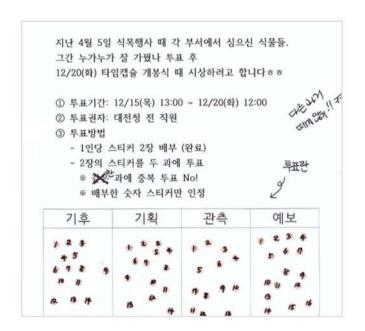






2022. 12. 20. 탄소중립 타임캡슐 연말개봉식

대전지방기상청은 작년 4월 청사 정원에 탄소중립 생활실천다짐 서약서를 담은 타임캡슐을 매립하였다. 연말이 되어 묻어두었던 타임캡슐을 찾아 개봉하고 개개인의 서약서를 나눠주는 개봉식을 개최하였다. 타임캡슐에는 탄소중립을 위한 서약서뿐 아니라 개인의 다짐과 소망도 담겨 있어, 각자가 2022년 한해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2022. 12. 20.

2022년 대전지방기상청 부서별 정원가꾸기 투표와 시상

대전지방기상청은 지난 제77회 식목일을 기념하여 부서별로 선정한 기후변화 대안 수종, 화초 등을 청사 정원에 식재하고 가꾸었다. 12월이 되어 한 해 동안 부서별로 열심히 가꾼 결과를 공유하고 투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5일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 결과, 기후서비스과의 '박 연대기'가 1등을 차지하였다. 이번 정원가꾸기는 탄소중립 실천을 이룰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좋은 추억이 되었다.

2022. 12. 21.

지역 기상 · 기후서비스 업무 발굴을 위한 간담회 개최



2022, 12, 21,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이외 전시물 최종 보고회





대전지방기상청은 2023년 개관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립서해안 기후대기 센터 야외 전시물 구축사업에 대한 최종 점검 보고회를 12월 21일 실시하였다. 야외 전시물은 역사·지상·해양·위성 등 다양한 기상관측 전시물을 관람 및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보고회를 통해 야외 전시체험시설 제작설치 사업에 대한 설계부터 완료까지 추진경과를 점검하고, 전시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한 달간의 시운전 계획을 협의하였다.

2022. 12. 26.

2022년 대전지방기상청 족집게 예보관 선정

대전지방기상청은 지역 기상 전문성 강화와 예보관의 사기진작을 위해 2022년 족집게 예보관을 선정하였다. 예보현업 4개팀을 대상으로 특보정확도, 선제적 특보 발표율, 지역예보기술개발 및 소통협력도 등을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평가결과최우수예보팀은서은진,이지훈,정믿음주무관,우수예보팀은박종경,이광명주무관,도약예보팀은김기봉,이나정,박형진주무관이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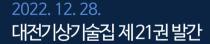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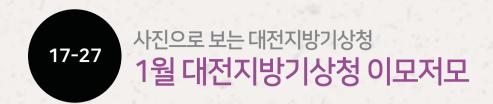
대전지방기상청은 충남권의기상·기후특성공유를위해 대전기상기술집제21권을 발간하였다. 각분야별(예보· 관측·기후)로 2년간(2021~2022년) 연구·조사한 자료를 취합하였고, 자료의 원활한 수집과 공유를 위해 기술집 발간 TFT를 구성·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책자 발간과 더불어 부서간 상호 업무를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기술집 발간을 통하여 예보, 관측, 기후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상기술 발전을 도모 하여기상재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2. 12. 30.

대전 · 세종 · 충남 기상분석실록 발간

대전지방기상청은 2022년 대전 · 세종 · 충남 위험기상 사례분석집(기상분석실록)을 발간하였다. 분석집은 호우, 대설, 황사 등 총 7건의 대표 사례를 분석한 것으로 예보관이 충남권의 지형효과, 위험기상별 충남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해하는 데에 이바지 하였다. 2022년은 대전 · 세종 · 충남 기상분석실록을 발간한 첫 해로, 조선왕조실록처럼 충남권에서 발생 하는위험기상을기록하여충남권의예보기술을전수하는 자료집이될 것으로기대한다.







2023. 1. 1. ~ 12. 31.

2023년 방재기상지원관 충남도청 파견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지자체 재해대응 현장에서 신속한 방재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방재기상지원관을 운영하고 있다. 방재기상지원관은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약 5개월 간) 충남도청에 한시적으로 파견하여 충남의 방재대응 업무를 수행하였고, 적극적인 방재대응을 지원함으로써 실무자로부터 높은 만족도 향상을 이끌었다. 이에, 올해 1월부터 충남도청 자연재난과에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방재기상지원관은 각종 위험기상의 피해 최소화와 효율적인 방재업무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대책회의 지원, 위험기상 자료 분석 등 적극적인 방재대응 업무 수행으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3. 1. 3.

2022년 탄소중립 중점 · 시범학교 기후과학교육 결과 보고

대전지방기상청은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교육부 등 6개 부처가 공동 운영 중인 탄소중립 중점·시범학교 기후변화과학 교육을 대전(청) 관할 9개교에서 운영하였다. 본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기후변화과학 강사육성과정 우수강사단이 참여하였으며 다양한 기상기후 교보재 활용을 통해 학생들이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탄소중립의 개념을 익힐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참여 인원의 81%가 교육에 만족함으로써 대전·세종·충남지역 기후변화과학 이해확산에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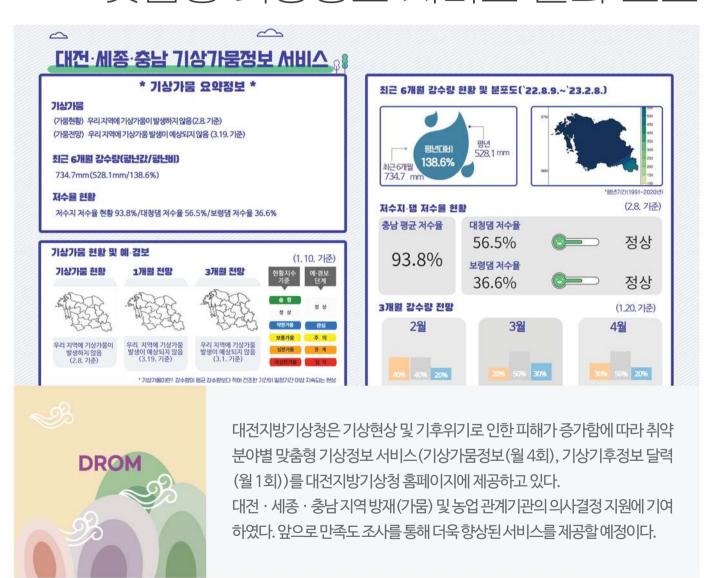


- 18 -

2023. 1. 9.

2022년

맞춤형 기상정보 서비스 결과 보고



2023. 1. 9.

DROM

2022년 찾아가는 예보관 직업체험 「거리어 멘토」 운영 결과 보고

대전지방기상청은 대전 · 세종 · 충남지역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총 10회에 걸쳐 예보관 직업체험 「커리어 멘토」를 운영하였다. 2023년 「커리어 멘토」는 블렌디드 러닝 방식을 도입하여, 사전 배포한 동영상으로 기상청 업무를 간접적으로 알아보고, 대면 수업을 통해 질의 응답과 더불어 기후변화과학에 대해 이해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면 교육을 선호하는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함과 동시에 교육내용의 다양화까지 모색하는 두 마리토끼를 잡음으로써 작년 대비 만족도 17% 향상의 긍정적 결과를 이끌었다.



2023. 1. 10. ~ 19.

설연휴 대비 관측장비 및 관측환경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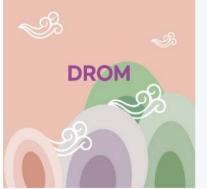


대전지방기상청은 2023년도 설 연휴 대비 기상관측장비 및 관측환경 점검을 실시하였다. 종관기상관측장비(8지점), 자동기상관측장비(9지점)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내·외부 비상연락망, 장애 대응체계 등을 점검하였다. 이를 통해 설 연휴기간 동안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며 비상상황에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기상관측장비 운영을 도모하였다.

2023. 1. 12.

2023년 「어선안전의 날」캠페인 해양기상 교육





대전지방기상청은 수협중앙회 태안어선안전조업국 주관 충남 서산시 지곡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한 2023년 1월 '어선안전의 날 캠페인'에 참여하여 관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해양기상정보 활용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새롭게 개정된 기상청 '해양기상정보포털(marine.kma.go.kr)'에 대한 리플릿 배포 및 해양기상정보 설명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실시하였다. IT 활용 기술이 점점 고도화되어가는 시기에 발맞춰 어업인들의 진보된 해양기상정보 활용 기술 습득에 일조하였다.

2023. 1. 16. ~ 17. 충남 남부 풍랑 및 강풍 특보 운영을 위한 기상관측차량 특별관측 수행

대전지방기상청은 1월 16일부터 1월 17일까지 충청남도 서천군 홍원항에서 충남남부 해양기상 특성 자료 수집을 위해 기상관측차량을 활용하여 기상관측을 수행하였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국립기상과학원의 기상1호 관측선과 동시 관측을 수행하여 해상에서의 관측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번 특별관측으로 수집한 해상과 해안가 관측자료의 비교·분석을 통해 충남 남부 지역 풍랑·강풍 특보 운영 기반 조성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 1. 28.

2022년 기상기후 계절별 카드뉴스 운영 결과 보고



대전지방기상청은 지역민의 기후위기 이해확산 제고를 위해 계절별 기상전망 및 기후특성 분석자료, 이상기후 발생현황 등을 담은 계절별 카드뉴스를 대전지방기상청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계절별 1회 (연4회)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민의 기후위기 인식 제고와 기상 · 기후 이해확산 홍보에 이바지하였다. 2023년에는 디자인 및 콘텐츠 개선을 통해 향상된 카드뉴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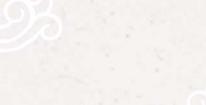




2023. 1. 18. 대전지방기상청 설 명절 위문 활동

대전지방기상청(청장 박영연)은 새해 설 명절을 앞두고 대전시 소재의 아동복지시설(그룹홈 형태)을 방문하였다. 지난 추석에 이은 방문에 대전지방기상청 직원들과 시설 종사자들은 더욱 반가운 인사와 대화를 나누었다. 이번 방문이 우리 지역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가 됨은 물론, 시설 종사자들과 아이들에게 도움과 위로, 격려가 되길 바란다.











2023. 1. 19. ~ 25.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기상정보 지원

대전지방기상청은 2023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1.19.~25.) 중 한국철도공사와 충남권 소재 기차역, 대전복합터미널 등 교통안전 중심의 방재 관련기관과 보건소 · 소방서 등 방역 관계기관, 국립대전현충원에 선제적으로 맞춤형 기상정보문을 제공하였다. 또한, 대전지방기상청 누리집 알림판을 통해 특화 페이지를 구성하여 각종 기상정보를 제공하며, 국민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교통대책 수립을 지원하고, 기상재해예방에 기여하였다.

- 26 -





2023, 1, 31,

대전지방기상청 테니스 동호회 '대테러' 신설

대전지방기상청은 건전한 소통과 체력 향상을 위해 테니스 동호회를 신설하였다.

동호회의 이름은 '대테러'로, '대전 테니스 LOVE'의 줄임말이다. 창립회원수는 16명으로, 대전(청) 전 부서, 여러 직급 직원들로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대테러는 올해 5월과 10월 대전지방기상청 테니스 정기대회와 9월 대전 지역 테니스 초보자 대회 참가를 계획하고 있다. 대테러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우리 청의 조직문화가 한층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2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2023. 2. 1., 8.

외국인근로자 영향예보 이해확산 설명회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영향예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할지역 외국인근로자의 한파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천안시(2.1.)와 당진시(2.8.)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영향예보 이해확산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영향예보 산업분야 다국어리플릿(영어, 중국어, 태국어 등 11개 언어)을 전달하였으며, 영향예보 및 기상정보활용방법 안내 등을 소개하고 기관 간 협조 사항을 논의 하였다. 앞으로도 관련기관과협력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기상정보활용 교육 등을 운영함으로써기상정보취약계층의 위험기상 피해를 경감시키기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23. 2. 8.

2023년 온고지신 프로그램 지식나눔 세미나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영예보관의 역량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온고지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2월 8일 지식나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호우, 대설, 한파, 폭염 등 위험기상에 영향을 미치는 블로킹의 특성과 객관적 분석 방법에 대해 박찬귀 기상전문관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숙달된 기상전문관의 예보 분석 노하우를 전달함으로써 충남권 지역에 맞는 예보 기술 축적과 앞으로 다가올 위험기상에 대한 예보관의 방재대응 능력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2023. 2. 9. 대전지방기상청 서천 동백정 해상감시 CCTV 교체

대전지방기상청은 서해상에서 유입되는 위험기상을 감시하기 위해 서천군 마량리 동백나무숲에 2013년 부터 해상감시용 CCTV를 운영하고 있다. 해안 장비의 특성상 해풍 등에 의한 부식으로 개선이 필요해 지난 9일 서천 동백정 CCTV를 HD고화질 카메라로 교체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선명하게 서해상의 해상상태를 감시하고 예보지원을 강화하여 위험기상으로 인한 기상재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23. 2. 9. ~ 10. 위험기상 대비를 위한 기상관측차량 고층관측 수행

대전지방기상청은 충남권 대설특보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상관측차량을 활용하여 금산 기상관측소에서 고층관측을 2회(9일 21시, 10일 03시) 수행하였다. 저기압이 예상보다 강하고 빠르게 통과하면서 강수가 일찍 시작되었고, 비로 시작한 강수는 눈으로 바뀌어 내렸지만 지상의 기온이 수치모델보다 높게 나타나 내린 눈이 녹으면서 일부 산지에서만 적설이 기록되었다. 앞으로도 기상관측차량을 통한 국지적 기상관측 수행으로 수치모델 자료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정밀한 예·특보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 2. 16. ~ 18.

DSC 모빌리티 진로대전 홍보부스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대덕특구 소재 연구기관의 공동 진로 프로그램인 'DSC 모빌리티 진로대전'에 참여하였다. 대전 · 세종 · 충남지역의 지자체, 대학, 연구소 등이 모두 모여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 뜻을 함께하였다. 간단한 VR 체험키트를 만들어 홍수 · 토네이도 등 특이기상에 대해 체험도 해보고, 탄소중립 문구가 적힌 기상이 키링을 만들며 실천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자신의 잠재 역량과 적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되었다.



2023. 2. 17.

新예보분석기술 활용 교실 기차 세미나가 개초



DROM

대전지방기상청은 지방예보 역량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인 "新예보분석기술 활용 교실" 1차세미나를 지난 2월 17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新예보분석 기술 활용 교실"의 교육 목적과 연간 계획에 대하여 소개하고, 직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 시간부터 기상현상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다양한 예보분석기술을 사용하여 날씨를 분석하고 토론할 계획이다. 이로써 개인별 예보분석기술을 공유하는 장과 동시에 예보분석 역량이 점진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다.

2022 December

- 12. 13. 첫 관설(식장산) 작년대비 6일 빠르고 평년대비 6일 늦음
- 12. 17. 일최심적설 극값(순위) 경신 홍성: 1위 7.7cm
- 12. 19. 일최저기온 최저 극값(순위) 경신 서산: 4위 - 13.9℃, 홍성: 2위 - 15.2℃, 세종: 5위 - 13.0℃
- 12. 23. 일최고기온 최저 극값(순위) 경신 천안: 4위 - 7.0℃, 금산: 5위 - 5.4℃, 홍성: 4위 - 4.7℃, 세종: 1위 - 5.2℃

일최대순간풍속 최고 극값(순위) 경신 금산: 3위 14.8m/s, 홍성: 2위 15.1m/s, 세종: 3위 11.9m/s

12. 24. 일평균기온 최저 극값(순위) 경신 천안: 5위 - 11.7℃, 홍성: 1위 - 10.3℃, 세종: 2위 - 9.2℃

> 일최저기온 최저 극값(순위) 경신 천안: 4위 - 18.1℃, 홍성: 3위 - 14.2℃, 세종: 4위 - 13.6℃

2023 January

1. 12. 일최고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서산: 2위 15.1℃, 대전: 2위 15.6℃, 천안: 5위 13.8℃, 보령: 4위 15.3℃ 부여: 2위 15.3℃, 금산: 3위 15.8℃, 홍성: 4위 12.2℃, 세종: 3위 13.2℃

1. 13. 일평균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서산: 3위 9.4℃, 대전: 5위 9.0℃, 천안: 4위 8.6℃, 보령: 5위 10.6℃, 금산: 3위 8.9℃ 홍성: 1위 9.3℃, 세종: 1위 8.7℃

일최저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서산: 3위 7.1℃, 홍성: 1위 5.0℃

1. 14. 일최저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금산: 4위 5.4℃, 홍성: 4위 3.9℃, 세종: 1위 5.5℃

1. 25. 일최저기온 최저 극값(순위) 경신 대전: 3위 - 17.7℃, 세종: 3위 - 17.5℃

일평균기온 최저 극값(순위) 경신 세종: 4위 - 11.5℃

1. 27. 일최대순간풍속 최고 극값(순위) 경신 세종: 1위 14.1m/s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는 기상청 전자민원

어떻게 달라졌나요?

http://minwon.kma.go.kr



인터넷 간편 신청, 발급

기상특보와 지진관측을 포함하여 모든 기상현상증명을 인터넷에서 무료 발급합니다. (기상현상증명, 기상자료제공, 지진관측증명)

전자증명서(PDF) 다운로드

전자증명서(PDF)를 발급하며, 기존의 종이출력와 파일 다운로드 모두 가능합니다.





디지털원패스(정부통합ID) 로그인

다양한 정부사이트를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부통합 ID를 적용하였습니다.

플러그인 설치없는 웹 환경

플러그인 대체 방안을 마련하여 기존 Axtive X를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없는 민원 서식

증명서의 개인정보표시 제한, 세로형 출력 등 민원 서식을 개선하였습니다.

무료로 발급 받으세요 알기쉬운 민원 신청방법

민원사무의 종류

1. 기상현상증명

법원, 경찰서, 보험회사 등 기관 및 단체의 법적 근거서류, 공사연기원 등 증빙용

2. 기상자료제공

학술 · 연구, 보고서 및 일지 작성 등 기록 및 분석용

기상청 전자민원 신청 순서

디지털원패스란, 다양한 서비스를 한번의 로그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부통합ID입니다.



회원가입(정부통합ID)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버튼을클릭하여 디지털원패스에 회원기업하고 기상청전자민원을 이용기관으로 체크합니다.



로그인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mark>디지털원패스ID(</mark>정부통합ID)로 로그인합니다.



민원신청선택

홈페이지 상단의 <mark>민원신청</mark>을 선택합니다.



민원종류선택

기상현상증명, 기상자료제공, 지진 관측증명 중 내가 필요한 민원을 선택합니다.



신청용도선택

농업, 토목/건축, 법률/보험, 학술/연구등신청용도를 선택 합니다.



기상요소선택

종류, 지점, 요소, 기간 선택을 순서대로 선택하고 <mark>다음</mark>버튼을 누릅니다.



신청내용확인

신청내용(신청용도, 종류, 요소, 지점, 기간)을 확인하고 <mark>신청</mark> 버튼을 누릅니다



발급완료

<mark>민원보관함에서 발급하기를 클릭</mark> 하여 전자증명서(PDF)를다운로드 하거나 인쇄하면 완료!

대전지방기상청관할 지상관측지점현황 (2023. 2. 현재)

1. ASOS (8소)

대전(133),서산(129),홍성(177),천안(232),보령(235),부여(236),금산(238),세종(239)

2. AWS(40소)

오월드(642), 세천(643), 장동(648), 세종고운(494), 세종금남(496), 세종연서(611), 세종전의(629) 계룡(636), 계룡산(659), 공주(612), 유구(632), 정안(633), 논산(615), 연무(644), 당진(616), 신평(637) 호도(578), 삽시도(609), 대천항(657), 외연도(669), 양화(635), 대산(606), 서천(614), 춘장대(646) 이산(634), 송악(493), 예산(628), 원효봉(694), 성거(617), 청양(618), 정산(691), 근흥(607), 만리포(658) 북격렬비도(229), 태안(627), 안도(666), 옹도(667), 홍북(608), 홍성죽도(610), 서부(645)

※기상특보 발표구역은 해당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 군 단위로 발표함(기상법 예보업무규정 제8조 제2호)



